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 박원순 선출 의미와 전망

다시 확인된 기성정치 엄증 본선까지 갈 듯

“조직력도 꺾은 시민참여 승리” 자평 본선전 민주당 입당 여부 최대 이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야권 시민대표인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른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비판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

아직까지 ‘안철수 효과’가 견제함을 증명할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배심원 조사에서 10.3%포인트, 시민여론조사에서 17.95%포인트의 우세를 바탕으로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현장 투표에서 제1야당의 조직력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명실공히 야권의 대표주자로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하게 됐다.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는 평가다.

진보개혁 시민사회 진영의 추천을 받은 박원순 후보는 경선방법 협상 과정 등에서 통 큰 양보를 보여주며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 경선 승리로 지난달 정치계를 갈타한 ‘안철수 효과’의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을 등에 업고 현실 정치의 경협 부족이라는 단점을 극복, 시민사회 진영의 서울시장 배출이라는 꿈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경선 패배로 야권의 1대 주주이자 ‘큰 형님’이라는 기존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안철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정당정치 위기라는 현상의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또 향후 야권통합 내지 연대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고 당내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

이처럼 시민사회계의 박원순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확정되면서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의 양강 구도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결은 사상 초유의 ‘정당-시민 후보’ 간 일대일 대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정치 혐오증’ 속에서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시민후보가 거대 여당의 스타정치인과 대척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이날 경선을 치른 야권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을 하고 있다. 야권 후보단일화의 ‘시너지 효과’와 경선의 ‘컨벤션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아직도 보수시민사회의 지지를 확



3일 법아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열린 장충체육관에 새벽부터 많은 시민이 몰려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물론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기호 2번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조직력과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후보라는 상징성은 그만큼 퇴색돼 약간의 지지층 이탈은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고정 지지층이 확실한 민주당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어서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초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입당 여부를 떠나 박원순 후보를 적극 도울 것이 확실시된다. 그가 ‘친 민주당’이라고 스스로 밝혀왔고 단일 후보 경선이었던 만큼 선거를 도와와

하는 도의적 책임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당 여부를 떠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시민후보, 야권의 승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승리일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도 이번 경선패배에 흔들리지 않고 박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영입·야권통합 시험대



손학규 대표 취임 1주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일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선택되면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손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야권 단일 주자인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손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후보의 승리를 이끄는 한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도 이끌어 가야 한다.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과 본선 승리가 이어진다면 손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편의 경우, 손 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당내 비주류들을 중심으로 높여 결국 그의 대권 플랜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4·27 분당을 보궐선거 승리로 원내에 진출하면서 지지율도 급상승, 야권의 대표적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당내 비주류 그룹과의 갈등과 문풍(문재인 바람)에 이은 안풍(안철수 바람)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전후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손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야권통합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고 손 대표의 지지를 제고 등등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거쳐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손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경원 ‘민심소통’ 박차

강남·북 격차 해소 3대 정책 발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법아권 단일후보가 선출되는 3일에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야권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의 연휴에 단일화 흥행 물이에 매진했다면, 나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밀바다 민심을 훑고 ‘생활특례시’로 대표되는 정책구상 설명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나 후보는 이날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다세대·다가구 주택가에 생활지원서비스 집중투자 ▲내 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금천구 독산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나 후보는 비강남권 아파트 중 최근 신규 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의 아파트 단지, 내진설계가 법아권 단일후보가 선출되는 3일에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야권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의 연휴에 단일화 흥행 물이에 매진했다면, 나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밀바다 민심을 훑고 ‘생활특례시’로 대표되는 정책구상 설명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나 후보는 이날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다세대·다가구 주택가에 생활지원서비스 집중투자 ▲내 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금천구 독산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나 후보는 비강남권 아파트 중 최근 신규 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의 아파트 단지, 내진설계가 법아권 단일후보가 선출되는 3일에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야권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의 연휴에 단일화 흥행 물이에 매진했다면, 나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밀바다 민심을 훑고 ‘생활특례시’로 대표되는 정책구상 설명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나 후보는 이날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다세대·다가구 주택가에 생활지원서비스 집중투자 ▲내 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금천구 독산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나 후보는 비강남권 아파트 중 최근 신규 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의 아파트 단지, 내진설계가 법아권 단일후보가 선출되는 3일에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야권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의 연휴에 단일화 흥행 물이에 매진했다면, 나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밀바다 민심을 훑고 ‘생활특례시’로 대표되는 정책구상 설명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도 깜짝 놀란 단일화 경선 흥행

참여경선 59.6% 높은 투표율 ... “이런 열기 처음” 고무

야권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경선이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현장투표 열기는 국민참여경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는 평가다. 이날 국민참여경선은 3만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만7885명이 투표에 참여해 59.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몰려 정치 축제를 방불케 했다.

이는 당초 마이너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던 민주당 경선이 흥행에 성공한데 이어 박원순 후보와의 본선 돌이 여론조사와 TV 배심원 평가, 국민참여경선의 3:3:4로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로 결정한 것이 흥행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파악되는 중장년층이 투표소를 많이 찾으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크게 고무됐다.

하지만 이날 점심 시간을 전후해 나들이 차림을 한 직장인, 아이를 동반한 가족 등 젊은층이 대거 투표장에 몰리면서 박원순 후보 측은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장외 지원 열기도 뜨거웠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 추미애, 김영환, 김부겸, 전현희 의원 등이 박영선 후보 옆에 나란히 서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손 대표는 “박영선 후보는 복지 서울 건설에 앞장선 선봉장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한 표를 부탁했다.

박원순 후보 측은 트위터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또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소설가 공지영씨 등은 투표에 참가한 뒤 ‘인중사’를 트위터에 올리고 후보 곁에서

지지자들을 맞으며 유세를 측면 지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장충체육관에서 투표하고 오전 동안 주변에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매우 많으시네요. 오후에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며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당원의 최규업 후보는 강기갑 전 대표와 함께 시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경선장을 찾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에 입문한지 20년 만에 국민참여경선에서 이러한 열기는 처음 느낀다”며 “정치는 참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1 재광 진도군 향우회 체육대회

- 일 시 : 2011년 10월 15일 10:00~17:00
- 장 소 : OB 맥주 광주공장 (북구 양산동)
- 대 상 : 500명(내빈, 향우회원 등)
- 행사내용
 - 의식행사
 - 제1부행사 : 개회식
 - 식후행사
 - 제2부행사 : 체육행사 (축구, 배구)
 -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 폐회
- 추진위원

재광 진도군 향우회장	한기민 010-9458-1896
수석 부회장	한찬권 010-7156-4363
상임 부회장	박성호 010-3601-0989
상임 부회장	김정운 010-9862-4708
진도읍 향우회장	이종원 010-5531-9797
고군면 향우회장	한진욱 011-9667-8041
군내면 향우회장	이덕홍 010-9978-7900
의신면 향우회장	박성열 010-2409-1548
임회면 향우회장	곽봉일 011-2616-8846
지산면 향우회장	최정규 010-3468-7741
조도면 향우회장	김재호 011-609-1779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기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계준) 010-5311-0086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직합)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근처,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중주거지역 (병원, 사육, 임대용상가건물신속부지적합) 화정동, 풍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양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9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18억

<규>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입니다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김장7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김장4억8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서구 생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김장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김장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능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김장4억5천만 최저가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개)

토지매매

-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철사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